

“청소년 환경교육, 저희들은 즐기면서 배워요”

일시적이고 수동적으로 진행되던 청소년 환경교육이 최근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사이버 환경교육이 바로 그것. 인터넷의 활용으로 세계적인 환경교육이 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도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살린 각종 교육 아이템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상의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사이트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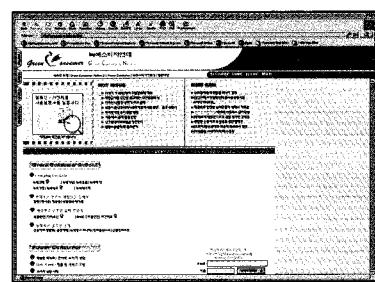
조 기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청소년 환경교육이 인터넷과 연계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여율, 교육 효과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와 환경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 환경교육의 중심이 되는 환경 체험 학습과 환경 감시단, 사이버 환경 기자단 프로그램 등은 인터넷과 연계된 이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은 홈페이지에 각종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 미당 안에 <푸른소리> 코너를 만들어 모피 반대, 국립공원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생태환경 농장 체험과 환경탐사 보조교사 등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푸른소리>는 사이트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환경 교육 활동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학생들이 수시로 자신들의 사이트에 올려 토론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을 우리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여기에 체험 활동 후 이해가 안가거나 알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는 Q&A 란을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다.

또한 <푸름이 기자단>을 운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발행되는 어린이소식지 ‘푸름이’를 제작하고 있다. 시사터치 8013, 푸른별 지구 진단, 푸름이의 눈, 환경만화 등의 포맷을 통해 어린이 기자들이 취재해온 다양한 환경 관련 기사들을 올리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도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녹색학교>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녹색학교>는 청소년 녹색 가계부 작성 캠페인, 청소년 녹색소비 실태조사, 청소년 녹색소비 실천운동 등의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해 일회용품 사용 자제, 교복 물려주기, 쓰레기 줄이기, 물품 재활용 생활화 등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 환경방송과 한국환경교육협회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환경기자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환경부도 최근 <어린이와 환경>이란 코너를 개장, 환경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사이버 상에 지구를 사랑하는 아이란 뜻의 <아이지엘>이란 청소년 대상 소모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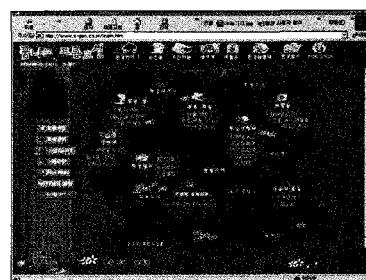


열어 환경 학습, 환경 체험, 재활용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들어 일반 기업체나 환경 산업과 관련된 단체들도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 기업이 96년부터 PC통신 유니텔에서 운영하던 '꿈나무 푸른교실'을 인터넷으로 옮겨와 서비스를 시작한 <이-젠>(www.e-gen.co.kr)과 6개 스티로폼 원료사들이 주축이 돼 운영되는 협회의 <스티로폼은 내 친구>(www.eps.or.kr) 사이트가 바로 그것이다.

이-젠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환경교육 전문 사이트. 환경 관련 사이트 최초로 Education과 Entertainment의 합성 개념인 Edutainment를 도입해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환경퀴즈를 풀고 환경뉴스를 작성하며, 활동 정도에 따라 가상자아(아바타)를 성장시켜 주는 <환경아이큐>, 자신이 직접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만화로 표현하는 <내가 만드는 환경이야기>코너 그리고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인 <환경특공대> 등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 이-젠은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 관련 주제를 공기·물·토양·재활용 등 네 분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사이버 환경교육 강회를 위해 문을 연 협회의 <스티로폼은 내 친구> 사이트(www.eps.or.kr)는 스티로폼 재활용을 위한 협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스티로폼의 제조 공정과 활용 사례를 통해 스티로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며, 스티로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스티로폼 상식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스티로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스티로폼 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현장 체험 학습의 신청도 받고 있다. ☺



단체명	사이트 주소	프로그램	연락처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푸른소리	02)747-8500
녹색소비자연대	www.gcn.or.kr	녹색학교	02)747-4990
녹색연합	www.greenkorea.org	아이지엘	02)747-8500
한국환경교육협회	www.greenschool.or.kr	청소년 사이버 환경기자단	02)571-1195
환경방송	www.hkbs.co.kr	청소년 사이버 환경기자단	02)711-4040
심성엔지니어링	www.e-gen.co.kr	어린이 전문 환경사이트	02)2235-6490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www.eps.or.kr	단체 현장 견학	02)761-0280~2
환경부	www.me.go.kr	환경 관련 정보 제공	02)500-4114